

우정수 <불한당의 그림자>

최근의 스페이스 사루비아 전시들이 공간을 대체로 어둡게 사용한 것을 보았는데 이번 우정수 작가의 전시는 하얗게 채색된 갤러리 공간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떠돌아다니는 불안한 이미지들로 인해 공간은 한층 더 어둡다. 전시의 작업은 사면의 벽 전체에 그려진 벽화들과 그 사이사이에 붙어 있는 여러개의 드로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장 안의 관객은 하나의 작품 전체에 둘러싸이게 된다. 관객이 작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관람객을 바라보는 판옵티콘과 같은 작업 내부의 시선과 상호교차한다. 정확히는 시선이 아니라 머리들이다. 목에서 잘린 머리들이 유령처럼, 증인들처럼, 동조자이자 가해자처럼 공간을 떠다니고 있다. 두터운 필체로 흐르듯 그려진 잘린 머리들이 다소 고딕적 분위기를 내고 있다면,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드로잉들은 머리들의 황망한 사연들이거나 혹은 그들이 꾸는 꿈의 장면들로 보인다. 자동차 사고, 가두 시위, 총기 살해 등 이미지가 전달하는 상황들이 구체적인 서사나 정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의 불안, 폭력, 부조리에 대한 고발적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그림의 필체나 장면들로 인해 언뜻 캐테 콜비츠의 판화와 같은 발언하는 목소리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화나 B급 영화 공포물에서 차용한 이미지들이 겹쳐져 있어 정직한 사회고발적 장면이라기 보다는 허구의 차용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화가의 등장이다. 공간의 가운데에 있는 퇴마사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화가의 상반신으로 보이는데 붓으로 연거푸 머리들을 그려내고 있다. 그가 그린 그림 속 머리들은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공간을 떠돈다. 이렇게 공간을 한바퀴 돌고 나면 다시 화가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그린 잘려진 머리들 중 하나를 자신의 얼굴에 장착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수상한 소문들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허구가 형체없는 실체가 되어 세상을 떠돌고 난 후 다시 창작자의 일부로 흡수되는 모순적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 혹은 화가가 할 수 있는, 펜 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힘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일지도 모르겠다. 우정수 작가의 작업은 픽션보다 더 픽션같고, 공포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현실에 눈을 돌린다. 그러나 공포의 감정을 조장하는 대신, B급 영화의 문법처럼 장면을 과장하면서

공포의 구조를 조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전시장을 빠져 나오자 마치 블랙 유머 가득한 만화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떠다니는 머리들 뿐 아니라 검은 잉크가 몸에 붙어 따라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보르헤스의 소설에서 차용한 전시의 제목처럼 전시는 현실의 각종 ‘불한당’들의 연대기를 정리한 이미지 아카이브를 구성한다. 아카이브는 어떤 분류체계를 적용해 자료들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전달하는 서사가 달라진다. 작가의 펜끝에서 생산되는 수 많은 이미지들이 “웃으면서 화내는” 촌철의 조합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김해주(큐레이터)